

생동하는 빛이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불은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60여년을 단 하루와 같이 진력하신 수현스님의 소중한 기록을 엮어내게 되어 축하와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담박하고 겸손한 소회를 더하고 있어 보는 이에게는 더 깊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일일이 기억으로 되돌아볼 수 없는 60여년은 말로도 글로도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고초와 애환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현스님 스스로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로 수행자의 삶을 편안하고 온전하게 살아왔다고 겸손해 하고 있습니다.

흑백의 사진은 오랜 시간을 알리듯 빛이 바래고 사진마다 그때의 모습으로 멈춰있지만, 향기롭게도 당시의 아픔을 수행자의 책무로 이겨내고자 했던 생동하는 빛과 정진의 원력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동안의 애환마저도 당연한 성취로 삼아 왔던 지난 시간은 모든 후학들에게 뚜렷한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후학 양성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의 불모지였던 사회복지에 이미 이른 시기에 투신하여 실천하고, 특히 어린이에 대한 애뜻함에 기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미래의 희망을 이루겠다는 서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재의 우리 사회에 모범으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척박한 환경을 마음 깊이 체감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자의 삶으로 따뜻하게 변화시켜 가는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한 수행자의 헌신과 원력을 넘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범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수현스님의 60여년의 향기는 후학은 물론 수행의 단단하면서도 친숙한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시절의 수행의 모습과 반가운 얼굴, 뜻 깊은 명소를 보여주어 회고의 감상을 주는 동시에, 시절마다 가졌던 소중한

한 정진의 마음가짐이 현시대의 삶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감동으로 현시대의 사회와 불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친절하
게 안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